

회심(回心)

| 김흥호 |

진짜 신앙이란 한마디로 어둠에서 빛 쪽으로 휩 돌아서는 것임을 말합니다(편집자 주).



로마서 13:11~14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밤이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 말씀은, 어거스틴이 이 말씀 때문에 어거스틴이 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바울선생,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11절은 위기, 재림, 구원, 그래서 톨리히라는 사람이 잘 말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여기에 취급되어 있어요. 희랍 사람들은 시간, 그럴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 둘을 생각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라고 하면 깨닫는 시간이구요. 우리 종말론에서 이런 말을 쓰지요.

요전에는 위기, 재림, 구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방향을 바꿔서 아래, 위로 그렇게 생각해 보겠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아래를 밤이라 놓고, 위를 낮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어둠의 일, 그리고 빛의 일, 그러니까 밤에는 어두운 일이 되고, 낮에는 빛의 일이 되겠어요. 마지막 14절에 보면, 육신의 일이란 말이 나와요. 밤의 일은 육신의 일이고, 낮의 일은 정신의 일이에요.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밤, 낮, 그렇게 나와요. 밤의 일이 무언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낮의 일은 무엇이라고 했냐하면 단정히 행하고, 공명정대하게 하는 거지요. 밤의 일은 육신의 일이라고 하고, 낮의 일은 영의 일, 정신의 일, 그리스도의 일, 그래 여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서부터 낮으로 180도 돌아야 그걸 회심이라고 하지요.

어거스틴의 회심이란 말을 컨버전conversion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두 발을 땅에 딛고, 머리를 위로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발을 하늘을 향하게 하고, 머리를 땅에 박고 살고 있다, 그것이 전도顛倒인 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무언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은, 흙이요 땅이요 혹은 이 세상이요 밤이요 혹은 육체요,

여러 가지가 많지요. 돈을 향한다고 그래도 그것도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땅에 관한 일이지요. 밤낮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생각하는 게 땅에 관한 것이지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 아닌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라. 생각할 수 없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념무상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무념무상의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반역자처럼 머리는 아래 있고 발을 위로 한 이것을 180도, 이렇게 뒤집어야 하는데 이를 회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뒤집혀지질 않아요. 머릿속에 흙이 가득 차 있거나, 돈이 가득 차 있거나, 어떤 사람은 땅을 몇 만 평 팔아 먹었다든가요. 그 사람의 머릿속은 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무거워서 지구의 인력에 끌려서 뒤집히지를 않아요. 어거스틴이란 사람의 회심이란 어두운 세계, 땅의 세계에서 어떻게 밝은 세계, 하늘의 세계로 넘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국』이란 작품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내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돌아가는 것이 회심이에요. 참말로 사람이 하늘로 머리를 쳐든다는 것은 좀처럼 되지 않아요.

어린애를 보면 머리가 얼마나 무거워요. 머리를 가누고 일어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 세상에서 사람처럼 머리가 무거운 동물이 어디 있어요. 다른 동물이 그렇게 무거운 머리를 가진 게 어디 있어요. 크고 무거운 머리를 하나님께 향하면 일어선다는 거지요. 이 걸 정신의 세계에서든 해내야 인격이란 것이 선 사람이 되는 거지요. 어거스틴의 회심이란 별 게 아니지요. 그걸 해낸 거지요.

그 다음엔 기독교란 게 무언가. 한번 머리를 들고서 딱 선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 회심 없이는 크리스천에게 아무것도 없는거죠. 그러니까 밤, 어둠, 죄, 그것을 버리고 딱 돌아서서 낮, 정신의 일, 밝은 일로 돌아서는, 그렇게 되는 게 어거스틴이 말하는 회심이에요.

그런데 몇 해 동안 어거스틴이 그렇게 애썼냐 하면 12년 동안 애썼어요. 어거스틴 자신도 물론 애쓰지만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 23년 동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해요. 그게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하는 원동력이지요. 어거스틴이 회심하고서 맨 처음 찾아가는 게 어머니예요. 일본 사람들이 군대 나가서 죽을 때에는, 돌아와서 말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천황폐하 만세!’ 그리고 죽더라, 그런 말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일본 사람들 죽는데 보면 ‘어머니!’ 그리고 죽는대요. 난 맨 처음에 ‘천황폐하 만세!’ 그리고 죽는 줄 알았는데, 전부 거짓말이래요. 이복에 가면 ‘김일성!’ 그리고 죽는다고 하겠지만 거짓말이죠.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젖어있는 것은 어머니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맨 처음에 찾아가는 곳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많으실 겁니다. 요전에 어떤 학생 한 팀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고 그래요. 스위스에서 어떤 분에게서 편지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그 곳에 모인 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그래요. 역시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요. 어떤 교회 선교부에서, 우리는 날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편지를 두 장 받은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거스틴은 엄마의 정성스런 기도에 영향을 받았고, 또 신세진 분

이 있는데 그것은 선생님들이예요. 그 중에도 성 암브로시우스 아니었으면 어거스틴이 못 나왔을지도 몰라요.

성 암브로시우스는 참 좋은 사람이예요. 어떻게 그런가 하면, 그는 예수님 믿는 것과 목사 되는 것과 감독 되는 것을 한꺼번에 치른 사람이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받는 것과 사제 되는 것과 감독 되는 것을 한 시에 받은 사람이예요. 암브로시우스는 본래 총독 정도 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소위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막 갈라지려는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갈리면 그냥 갈리는 게 아니라 민중의 소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그 당시의 교회 책임자들이 모인 총회의 자리에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갈려서 되느냐. 그러고는 입장 간절한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어떤 어린애 하나가 소리를 지르는데, “감독은 저 사람을 시켜라”고 했어요. 그 어린애 말대로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시키자고 했어요. 물론 사양을 했지만 결국은 감독이 되는데, 그래 우선 세 부터 주고 사제를 만들어 가지고 감독으로 추대되었어요. 감독을 시켰는데 이 사람의 설교를 어거스틴이 듣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개하는 큰 계기가 되었지요. 이 암브로시우스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로마인서 7장 6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 할지니라” 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마디만 더 하겠어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민중을 죽였는데, 그리고 그 황제가 교회로 왔어요. 그러자 암브로시우스가 문을 딱 막아서서 피를 흘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

“오호라! 나는 괴롭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힘이 닿아야, 일생에 한번 그 힘이 우리에게 와서

부딪치는 그런 경험, ‘근본 경험’이란 말을 쓰는데,

그런 근본경험 없이는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확 돌아가면

어떻게 되시고 하니 낮의 삶, 정신의 삶이 이루어지리니

느냐고 못 들어오게 했죠. 그랬더니 황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못 들어갔는데, 사실 암브로시우스는 사형감이죠. 그러나 너무도 놀라고 질려서 황제가 감히 사형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8개월 동안 꼼짝 않고 있다가 결국은 크게 회개하고 암브로시우스에게 가서 굴복을 했어요. 암브로시우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힘이 어거스틴을 회심으로 몰아간 거지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아주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정말 마음의 평안이 없다”고 『고백록』을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이 들어와야지, 우리 사람의 힘, 아무리 암브로시우스의 힘이라도 되지 않아요. 어머니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힘이 들어올 때 그때 돌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힘이 로마인서 13장 11절에서 14절, 여기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바울 선생이 “오호라! 나는 괴롭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힘이 닿아야, 일생에 한번 그 힘이 우리에게 와서 부딪치는 그런 경험, ‘근본 경험’이란 말을 쓰는데, 그런 근본경험 없이는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확 돌아가면 어떻게 되시고 하니 낮의 삶, 정신의 삶이 이루어지리니..., 어거스틴이란 사람이 자기가 교회 일을 보면서 책을 몇 권을 썼나 하면 293권을 썼어요. 놀랄 만한

숫자지요. 그 일을 해낸 정신, 그것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고백, 콘페션 confession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보고 표현한다’라는 뜻이래요. 보는 것 없이는 표현이라는 게 안 되죠. 아마 여러분 방학을 지내고 돌아와서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가서 봤으니까 그 본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되지 않아요? 고백이란 말은 ‘보고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소위 콘페션이지요.

그래 신앙이란 무언가 하면, 한마디로 어둠에서 희 돌아서야 해요. 그리고 빛 속에서 우리가 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그것이 신앙이지요. 그러니까 회심 없이는 진짜 신앙은 되지 않는 거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실상이란 요전에 변선환 목사님이 “장미는 까닭 없이 핀다”는 말을 했어요. 그저 피니까 피지, 변 목사 얘기는 그 속에 ‘왜?’라고 하는 게 없다. 그저 핀다, 그랬을 때, 중국 사람의 예를 하나 들어서, 진리가 무언가, 했더니 “뜰 앞에 있는 전나무다”라고 대답했어요.

결국 신앙의 세계란 무언가. 실상을 보는 거지요. 진리가 무언가, 할 때 진리는 무어라든가, 왜라든가, 그게 없어요. 진리가 무언가 할 때 전나무, 동양적으로 말하면 실상을 보는 것, 그것이 소위 회심回心이지요. 어떻게 보았나. 눈이 있으니까 보았죠.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깨라, 깬다는 건 눈이 탁 뿔다는 말이죠. 정신적으로 말하자면 잠자다가 깨어서 그래야 밝은 세계가 되는 거죠. 눈이 뜬 거죠. 그래서 실상을 보는 거죠. 실상을 봐야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죠. 이를 동양적으로 표현할 때는 실상무상實相無相 미묘법문微妙法門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소위 회심이에요. 그럼 보는 게 무엇인가. 어저스틴이 무얼 봤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봤으니까 그대로 자기 과거의 모든 것을 쓸 수가 있지, 보통 사람이면, 그것을 못 본 사람이면 창피해서 쓰겠어요? 또다시 그런 죄를 범할 사람이면 그걸 쓸 수가 있나. 그것하고 나하고는 상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삼자의 입장에서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속에,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리요, 하는 식으로 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젠 낫의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컨버전이 되었으니까, 콘페션이 되는 거지 회심이 안 되었으면 고백도 못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돌리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어요. 최선의 노력을 하는 데는 나도 노력하지만 우리 교인들도 노력하고, 선생님들도 다 합해서 노력하고, 노력한 끝에 그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희는 기다리라, 구해라. 구하면 준다. 찾아라, 찾으면 나온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도대체 뭘 구합니까. 뭘 찾습니까. 무얼 만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건 다 못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야 못 만나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 힘, 그것만은 하나님이 꼭 주신다. 그리고는 주기도문이 끝나요. 여러분이 구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회심, 돌아가는 순간, 이것만은 꼭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몇 살이 나서 돌아가든, 어저스틴처럼 서른세 살이 나서 돌아가든, 하나님께 회 돌려야, 하늘에 머리를 두고, 땅에 발을 디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요.(끝) 

- 이 글은 『김홍호 사상 전집 - 사람 삶 사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홍호** | 다석 유명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빛 힘 숨(십자가 부활 승천)

요한복음 강해 (전5권) 세트

김홍호 저 | 사색 권 | 56,000원



『김홍호 사상 전집』 제8권~12권이 출간되었다. 이번 책은 『빛 힘 숨: 십자가 부활 승천』의 제목을 가진 요한복음 강해 다섯 권이다. 이 책은 일러두기에 소개된 것처럼 21장 81절로 구성되어 있다. 21장은 요한복음의 21장이며 81절은 81회의 강의를 말한다.

이 책은 저자 김홍호 선생이 1993년 3월 7일부터 1995년 6월 25일까지 이화여대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강의했던 것으로 총 2년 반, 다섯 학기 동안 해온 81회의 강의들이다. 이 강의들을 학기 별로 나누어 전5권으로 출간하였다.



김홍호 사상 전집

기독교 설교집 세트(전6권) (CD 1장 포함)

김홍호 저 | 사색 권 | 40,000원

저자의 강의와 설교 등을 모아 총6권으로 엮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예다가 풍부한 비유를 곁들여, 자신이 얻어낸 실천과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절묘하게 전달해온 저자가 펼쳐온 삶의 철학을 이어나간다.

(구성) 제1권 『사람 삶 사랑』, 제2권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 제3권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4권 『믿음의 힘』, 제5권 『하루를 사는 사람』, 제6권 『영원을 사는 사람』